

**주간농촌·농촌동향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

※ 본 자료는 12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핵심과제**

- 구제역, 농수산물 가격불안 등 위험관리 대폭 강화
- 농식품 수출 76억불 달성 목표로 총력 대응
- 10만 정예인력 양성, 농어촌 활력창출을 위한 범국민운동 전개

**□ 주요내용**

**1. 구제역, 농수산물 가격불안 등 위험관리 대폭 강화**

**1.1. 축산업 허가제 도입 등 가축질병 대응 강화**

- 축산농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축산업 허가제 도입, 질병 발생농장의 보상금 삭감, 축사 출입 차량과 인력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 의무화,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교육·소독 의무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였음.
- 또한 축산농가의 해외여행후 입국신고 및 소독을 의무화하는 한편,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 발생원인 제공시에는 농장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지자체의 예찰·검사 및 초기 진단능력 제고를 위해 지방 거점지역에 정밀검사기능을 갖춘 진단 실험실 설치를 추진하고,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 항원 진단 키트를 공급하기로 하였음.

**1.2. 농수산물 가격 불안 해소**

- 농업관측을 재배면적·작황중심에서 시세예측 중심으로 정밀화하고, 기상 이변시 월 1회 실시하던 관측을 3회로 늘려 실시하기로 하였음.

- 주요 수급불안 품목의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현재 생산량의 10% 수준에서 '15년까지 50%로 대폭 확대하고, 저장성 있는 양념류·수산물의 비축물량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도매시장 가격 급등락을 완화(가격조정제 도입 등)하기 위한 농안법 개정을 추진하고, 거래방식도 농가의 선택에 따라 경매 외에 정가·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사이버 거래소를 활성화하고 바로마켓과 같은 소비자 인근 대형 직거래 장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및 생활협동조합 등과의 직거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1.3. 쌀 수급안정**

- 쌀의 수급안정을 위해 논 4만ha에 타작목 재배를 추진하고, 정부쌀 할인 공급과 가공용 쌀 재배단지 조성, 핵심가공기술 개발을 통해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RPC의 통합·규모화와 쌀 자조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또한 관세화 논의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12년 관세화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2. 농식품 수출 확대, '11년 76억불 달성 추진 ('12년 100억불)**

- '11년 중국 청도에 물류 서비스 및 시장분석 등을 담당하는 수출전진기지를 건설하고, 공세적 마케팅을 전개하는 등 수출목표 76억불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음.  
 ※ 농식품 수출 : ('07) 37.5억불 → ('09) 48.1 → ('10) 60 내외
- 또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발효식품산업, 기능성 식품과 식품소재·기자재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14년 완공을 위해 '11년부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한 시범사업(5개소)을 추진할 계획임.
- 아울러 민·관 협력 방식으로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 외식업체의 해외진출 촉진 등 한식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기로 하였음.

### 3. 정예인력 10만명 육성으로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과 추진

- 농어촌의 활력화를 위해 농어촌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정예인력 10만명을 육성하고, 정예인력 주도하에 의식개혁, 경영혁신, 특성화 마을 조성,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여 농어촌의 획기적 변화를 도모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임.
- 이를 위해 중앙과 지자체에 민간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추진기구(범국민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마을단위에도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임.
- 아울러 농어촌 활력화를 위한 국민운동의 분위기 확산을 위해 1사1촌 운동 등과 연계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마을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마을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집중지원하고, 가장 활력 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가칭) 대한민국 농어촌마을 대상'을 시상할 계획임.

### 주간농촌·농촌동향 2011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지역 확정

※ 본 자료는 12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11 광역친환경농업 단지 조성지역 7개소 확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 사업개요

-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시·군 수계단위로 경종(耕種)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단지 조성
  - '11년도 사업대상지역 : 예산, 장수, 곡성, 포항, 창녕, 함양, 제주
- 사업기간 : 3년(1년차 10%, 2년차 50%, 3년차 40%)
  - '08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
- 지원액 : 개소당 60~100억 원(국고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사업계획 및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80~12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유통시설, 농축산자원화 시설 등 지원

#### □ 사업대상지역 개요

- 예산 광역단지
  - 수도작 벼농사와 밭작물이 혼재된 영농구조에 유기축산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으로 자원순환형 농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으로 농촌형 수익모델을 창출하여 명품 농축산물 생산과 농촌문화·체험관광을 통하여 수익을 증대해 나갈 계획임.
- 장수 광역단지
  - 소백산맥과 노령산맥 분기점으로 동으로는 낙동강, 서남으로는 섬진강, 서북으로는 금강을 분수하는 수계이자 발원지로서 청정지역의 자연환경과 친환경농산물 장수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계획임.
- 곡성 섬진강광역단지

- 풍부한 하천과 다양한 습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평야지인 옥과면과 동부의 섬진강, 대항강 유역은 비옥하고 관수가 양호하여 전형적인 친환경농업 실천이 용이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음.

○ 포항 청초롬광역단지

- 낙동강 수계인 자오천이 사업대상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고 있고, 포항시 농업을 선도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한·육우, 젓소, 돼지는 시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어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형 농업을 구축하는데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창녕 우포늪광역단지

- 동북부는 화왕산을 중심으로 한 산악지대이며, 서남부는 낙동강을 끼고 도는 평야지대로서 비옥한 농경지를 이루고 있음.
- 생태계의 보고인 우포늪 주변 낙동강과 토평천 수계 지역으로서 토양이 비옥하고 용수공급이 원활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가 매우 용이한 지역임.

○ 함양 물레방아골광역단지

- 소백산맥의 최고봉이며 덕유산과 지리산의 청정수계와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1,000m가 넘는 고봉들로 둘러싸여 오염원이 없고 빼어난 자연경관과 지역특산물이 풍부하고 게르마늄 광맥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토양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최적지로 평가됨.

○ 제주 동부권광역단지

- 세계 자연유산인 성산 일출봉을 비롯하여 제주 동부권의 관광중심지로서 월동채소인 당근, 무, 감자 주산지, 발농업 중심 다품목 재배지역으로서 제주 친환경농업을 규모화하여 경쟁가능한 돈버는 농업을 실천하고 청정제주 친환경농업 시범도 조기실현할 계획함.